





**(사)한국포장협회**

**제276차 이사회 개최**

30년사 제작, 해외전시 파견 등 논의

(사)한국포장협회(회장 임경호)는 지난 9월 14일 제276차 이사회를 개최했다.

협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이사회에서는 제38기 포장기술관리사 통신교육, 협회 30년사 제작, 튀르키예 이스탄불 포장전시회 한국관 운영, 도쿄팩 참관단 파견, 회원가입 심의, 포장인 포럼, 회장배 골프대회에 대한 안건 심의 및 보고가 있었다.

협회 30년사 제작과 관련하여 이미 진행된 내용에 미래에 대한 전망과 회원사의 개재 내용 발굴 등을 보완하기로 했다.

튀르키예 이스탄불 포장전시회에는 한국관을 구성하여 참가사뿐만 아니라 회원사 홍보를 강화하고, 도쿄팩에는 참관단을 파견하여 일본 업체방문, 참가사 면담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회장배 골프대회를 고문, 자문위원을 초청하여 10월에 개최하기로 확정했다.

협회는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다양한 사업을 통해 회원과 업계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 (사)한국포장협회 제276차 이사회

**(사)한국포장협회****광주 이천 용인 지역모임**

활성화 방안 모색

(사)한국포장협회 광주 이천 용인지역 모임(지역장 임이중)이 지난달 26일 경기도 곤지암 소재 우혜정에서 있었다.

이날 모임은 코로나19 방역 완화 이후 첫 번째로 진행되었지만 회원들의 참여가 적어 아쉬움을 주었지만 지역 동향 등 다양한 정보를 교환하는 알찬 시간이 되었다.

경기도 광주 지역에는 연포장 업체가 많이 있지만 회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하는 업체가 적어 회원 확대와 활성화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이날 모임에는 비회원인 (주)동이특수팩 김금태 부장이 참석하여 적응기간을 거쳐 함께 활동하기로 하였다.

광주 이천 용인지역 다음 모임은 11월 28일(월)이다.



▲ 협회는 지난달 26일 광주 이천 용인지역 모임에서 정보교류, 모임 활성화 등 다양한 논의를 하였다.



회원사의 창립기념일을 축하드리며 끊임없는 발전과 성장이 계속되기를 기원합니다.

(사)한국포장협회 회원사 임직원 일동

**[주]다산팩(주)**

2002년 10월 10일 창립 20주년

**[주]대영기업**

1986년 10월 창립 36주년

**[주]더한기술**

2004년 10월 1일 창립 18주년

**삼광잉크제조(주)**

1980년 10월 7일 창립 42주년

**[주]성보잉크**

1978년 10월 1일 창립 44주년

**성안기계(주)**

1960년 10월 1일 창립 62주년

**[주]신원인팩**

1998년 10월 1일 창립 24주년

**에스케이씨(주)**

1976년 10월 16일 창립 46주년

**일광잉크페인트(주)**

1982년 10월 8일 창립 40주년

**[주]일신택**

1976년 10월 5일 창립 46주년

**[주]제이케이머티리얼즈**

1974년 10월 4일 창립 48주년

**청우화학(주)**

1981년 10월 12일 창립 41주년

**[주]플러스팩**

1972년 10월 5일 창립 50주년

**한국컨테이너폴(주)**

1996년 10월 2일 창립 26주년

## 세창화학(주)

## 수성잉크 제조방법 특허 취득

포장용 필름에 적용



▲ 세창화학(주)의 수성잉크 제조방법 특허증

포장용 잉크 전문 생산업체인 세창화학(주)(대표이사 김세창)이 수성잉크 제조방법에 대한 특허를 취득했다.

‘탄소배출량을 저감할 수 있는 필름용 수성잉크 조성물 제조방법’이란 명칭으로 발명 특허를 받은 세창화학은 포장용 필름에 이 기술을 접목시켜 보다 나은 인쇄 품질을 유지하고 환경에 도움이 되는 제품을 생산할 수 있게 되었다.

세창은 수성잉크 제조방법에 대한 특허를 바탕으로 기존 그라비아 인쇄 방법에 수성잉크를 적용시키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 결과를 보완하여 친환경 잉크로 자리매김한다는 방침이다.

## 동원시스템즈

## ‘제5회 대한민국 회계대상’ 최우수상 수상

내부회계관리 전담 조직 신설 및 기업회계 분야 전문 인력 양성

동원시스템즈가 9월 6일 서울시 중구 매경미디어센터에서 진행된 ‘제5회 대한민국 회계대상 시상식’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매일경제신문이 주최하고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세청 등이 후원하는 ‘대한민국 회계대상’은 외부감사법 대상 기업 중 사업보고서 평가와 심사 등을 통해 기업회계 투명성 제고에 크게 기여한 기업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동원시스템즈는 지난해 내부회계관리 전담 조직을 신설하여 전사 회계관리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신뢰성 있는 재무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기업회계 분야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등 회계정보 투명성 강화에 앞장서



고 있다.

또한 친환경 포장재, 2차전지 소재 등 친환경 기술에 투자하며 ESG경영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동원시스템즈는 5월 화학적 유기용매를 사용하지 않는 포장지 제조 기술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녹색기술 인증을 획득했다. 지난해 11월에는 ESG 녹색채권을 발행하고 한국기업평가로부터 녹색채권 인증의 최고 등급인 'G1'을 획득하는 등 사업의 친환경성을 인정 받기도 했다.

동원시스템즈 관계자는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사회필요기업”으로서, 앞으로도 투명한 경영 활동을 바탕으로 주주를 비롯한 다양한 관계자들과 활발히 소통해 기업가치를 높여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주)오리온

### 전국품질분임조경진대회 3년 연속 대통령상 금상 수상

오리온 익산공장, 탄소중립 부문에서 온실가스 원단위 저감 노력 높이 평가 받아

오리온은 '제48회 전국품질분임조경진대회'에서 최고상인 대통령상 금상을 3년 연속 수상했다고 9월 14일 밝혔다.

전국품질분임조경진대회는 근로자들의 현장 개선 사례 등을 공유하고 품질혁신 기반을 마련하자는 취지로 매년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경상북도, 경주시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표준협회가 주관해 8월 29일부터 9월 2일까지 치뤄졌다. 이번 대회에는 지역예선을 거쳐 선발된 총 266개 분임조가 참가해 열띤 경연을 펼쳤다.

오리온 익산공장 'Strong 오리온' 품질분임조는 탄소중립 부문에서 제과 생산 설비 개선을 통한 '온실가스 원단위' 감축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상 금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특히 츄잉캔디 제품인 '비틀즈'의 성형실 외기 공급설비를 구축하고, '눈을감자' 등의 주원료인 냉동감자 보관을 위한 창고 냉동기를 개선해 온실가스 원단위를 각각 10.34%, 7.69% 낮추는 성과를 거뒀다. 오리온 익산공장은 이를 포함한 총 9개 설비를 개선해 기존 대비 연 1500톤의 탄소배출량을 저감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오리온은 그룹 경영방침인 윤리경영에 기반한 친환경 활동을 전개하면서 다양한 분야에 걸쳐 성과를 인정 받고 있다.

지난 2021년 청주공장과 익산공장이 동시에 농림축산식품부의 '온실가스 감축 지원사업' 대상 사업장으로 선정됐으며, 청주공장 'Only 오리온' 분임조가 스낵 제조공정 설비 개선 등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성과를 인정받아 전국품질분임조경진대회에서 대통령상 금상을 2년 연속 수상한 바 있다. 또한, 국내 식품업계 최초로 한국표준협회로부터 국내외 법인 사업장들의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해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제3자 검증도 완료했다.



▲ 오리온은 '제48회 전국품질분임조경진대회'에서 최고상인 대통령상 금상을 3년 연속 수상했다고 밝혔다.

올해부터는 국내외 법인의 온실가스 배출량 등 주요 데이터를 측정하고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글로벌 탄소배출 통합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청주공장과 익산공장이 농림축산식품부의 '에너지경영시스템 구축 지원사업' 및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대상 사업장으로 각각 선정됐다. 해외에서도 베트남 법인 옌풍공장이 신재생 에너지원인 '바이오매스'를 도입하고, 중국 법인 상하이공장이 태양광 발전을 가동하는 등 글로벌 친환경 활동을 적극 펼치고 있다.

오리온 관계자는 "임직원들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노력이 친환경 성과로 인정받으며 3년 연속 대통령상 금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뤄냈다"며 "윤리경영을 기반으로 국내외 법인 간 온실가스 저감 노하우를 공유해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코오롱인더스트리(주)

### 항균물질 루테린 양산 바이오 기술 개발...보존제에 첫 적용

향후 생활용품, 식품첨가제, 작물보호제 등 다방면으로 활용 가능 기대

코오롱인더스트리(주) (대표이사 사장 장희구)는 인체 유익균에서 유래한 항균물질인 '루테린 (Reuterin)'을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바이오 기술을 개발, 화장품용 천연 보존제에 첫 적용 중이라고 8



▲ 코오롱인더스트리(주)는 인체 유익균에서 유래한 항균물질인 루테린을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바이오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월 29일 밝혔다.

코오롱인더스트리는 한국 생명공학연구원(원장 김장성)과 함께 약 4년간 공동 연구를 통해 고농도 루테린 생산에 가장 적합한 신규 균주를 확보, 100% 발효 공정으로 이뤄진 바이오 양산 기술을 개발했다.

최근 이를 활용한 액상 형태의 천연 보존제 ‘프리저베일(PreserVeil)’도 선보였다.

‘프리저베일’의 주성분인 루테린은 모유에서 처음

발견된 유산균인 ‘락토바실러스 루테리(Lactobacillus reuteri)’가 생산하는 항균 물질로 ▲세균 및 곰팡이 성장을 억제하고 ▲면역 및 장 건강 증진 효과가 뛰어나며 ▲독성이 없어 안전하다고 잘 알려져 있다.

하지만 루테린은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생산량이 적고 생산 과정에 오랜 시간이 소요돼 보존제로 사용하기 쉽지 않았다.

코오롱인더스트리는 이를 극복한 자체 기술을 통해 루테린 양산에 성공했고, 화장품용 천연 보존제에 적용했다. 화장품의 경우 외부 오염을 피할 수 없어 제조 시 보존제는 필수 원료인데, 최근 피부 자극, 발암 유발 등 합성 보존제의 부작용이 지속 제기됨에 따라 안정성과 항균력을 모두 보유한 ‘프리저베일’이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코오롱인더스트리 H&B랩 이경민 수석연구원은 “다년간의 시행착오를 거쳐 최대한 많은 루테린을 얻을 수 있는 신규 균주를 발견했고, 차별화된 바이오 기술을 더해 양산에 성공했다”라며 “화장품용 천연 보존제뿐 아니라 생활용품, 식품첨가제, 작물보호제 등 다방면에 걸쳐 활용하기 위한 연구를 지속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프리저베일’은 유럽 화장품 인증기관이 설립한 대표적인 유기농 천연 화장품 국제 기준인 COSMOS(COSMetic Organic Standard, 코스모스) 인증도 획득해 친환경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COSMOS 인증 중에서도 천연 100% 화장품 원료 인증인 ‘APPROVED’ 등급을 받았다.

코오롱인더스트리는 제품 출시와 함께 국내 화장품 제조사와 관련 테스트를 병행하는 등 라인업 확대를 활발히 모색 중이다.



## 한국컨테이너플(주)

### 환경부와 ‘다회용 수송포장재’ 시범사업 환경적 효과 입증

물류 프로세스 전반 운영하며 다회용 포장재의 환경 및 경제적 효과 입증



▲ 환경부 시범사업에 사용된 KCP Cocon box

로지스올그룹 한국컨테이너플(주) (이하 KCP)이 환경부가 주도하는 ‘다회용 수송포장재’ 시범사업 물류운영사로 참여한 7개월 간 환경 및 경제적 효과를 입증했다고 9월 22일 밝혔다.

다회용 수송포장재 시범사업은 일회용 포장 증가로 인한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자 환경부가 추진한 사업이다. KCP 외 8개 기업 및 기관이 2022년 1월부터 7월까지 7개월간 유통기업 수요에 맞는 포장재 제작 및 회수체계, 세척관리, 물류정보 시스템 등 유통체계를 구축했다.

KCP는 전용 포장재(다회용 택배상자) 공급, 공박스

회수, 세척, 재공급 등 프로세스 전반의 운영을 담당했다.

다회용 포장재 이용에 참여한 유통기업의 수요에 따라 재활용이 용이한 소재인 폴리프로필렌(PP), 폴리에틸렌(PE)과 업사이클링 소재인 재생 PET를 소재로 수송용 상자를 개발했으며, 컨테이너 폴링 사업을 통해 전국에 구축한 포장용기 회수 및 세척 인프라를 활용해 다회용 포장재가 원활히 순환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지난 9월 14일 환경부 발표에 따르면 시범사업기간 약 7개월 동안 다회용 포장재는 총 23,477개를 사용하여 총 358,109회 유통하였고, 다회용 포장재당 평균 재사용 횟수는 15.25회였다.

이에 따른 환경성 평가 결과, 다회용 포장재 사용 시 온실가스 배출량이 평균 74.49% (622.1gCO<sub>2</sub>/회)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다회용 포장재가 213.0gCO<sub>2</sub>/회, 1회용 포장재가 835.1gCO<sub>2</sub>/회 발생된다. 폐기물 발생량은 다회용 포장재가 1회용에 비해 99.3%(610g/회 → 4.3g/회)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성 평가 결과에서는 다회용 포장재 사용 시 배송원가가 1회용 포장재 사용 대비 169원(3.9%) 높게 나타났다. 다만 시범사업에 참여한 5개 유통사 평균 배송원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평균 89%로 나타난 다회용 포장재 회수율을 제도 및 인식 개선 등을 더 높일 경우 충분히 비용 개선이 가능한 수준이다.

변진범 KCP 소비재마케팅팀장은 “3R(Returnable, Reusable, Recycle)을 기조로 한 컨테이너 폴링 사업을 운영하면서 국내 산업 전반에 다회용기를 적용해왔다”며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환경적 측면은 물론 경제적 측면에서도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된 만큼, 더욱 다양한 산업에 다회용 포장용기가 본격적으로 적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인천광역시

## ‘2022 글로벌 바이오플라스틱 컨퍼런스’ 개최

생분해 플라스틱 산업 발전방향 모색

산업통상자원부와 인천광역시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플라스틱산업협동조합, 인천대학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석유화학협회가 공동 주관한 ‘2022 글로벌 바이오플라스틱 컨퍼런스’가 9월 14-15일 양일간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됐다.

이번 컨퍼런스는 미국, EU, 일본, 중국 등의 생분해 플라스틱 전문가 500여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해, 생분해 플라스틱 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조망하고, 국내 산업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생분해 플라스틱은 바이오 플라스틱의 한 종류로 일정 조건의 환경에서 90% 이상 생분해되도록 설계된 플라스틱으로, 글로벌 시장은 연평균 33.5% 이상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글로벌 최신 환경동향 및 이슈, ▲생분해 플라스틱과 순환경제, ▲국내외 기술 동향 및 ESG 사업동향, ▲화이트바이오 연대협력 협의체 등을 중심으로 생분해 플라스틱산업의 글로벌 확대를 구체화하기 위한 방안들이 모색됐다.



▲ ‘2022 글로벌 바이오플라스틱 컨퍼런스’가 9월 14-15일 양일간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됐다.

이와 함께 부대 행사로 국내 기업들의 기술 및 제품을 소개하는 전시부스를 운영하고, 취업박람회 등의 행사도 진행됐다.

박종태 인천대학교 총장은 개회사를 통해 “온실가스 저감 등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과 플라스틱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정부, 지자체 및 산·학·연과 정보를 공유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이번 컨퍼런스를 개최하게 됐다.”며, “이 행사가 생분해 등 바이오플라스틱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산업계 비전을 구체화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산업부 주영준 산업정책실장은 환영사에서 “탈플라스틱으로의 전환 요구, 탄소중립 이행 의무 등 대내외적 여건은 매우 엄중한 상황으로, 바이오플라스틱 산업은 우리 화학업계가 반드시 나아가야 할 길”이라며, “미래 먹거리 산업의 육성을 위해 지속적인 기술개발, 자금·제도개선 등의 지원과 함께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현장의 애로 해소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첫날(14일) 오전 강연에서는 ▲지속가능한 화학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생분해 플라스틱 산업 육성 중심, 산업부), ▲화이트바이오산업 육성 비전과 전략(인천시), ▲플라스틱 오염 국제협약 동향 및 쟁점(외교부)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오후에는 ▲글로벌 최신 환경동향 및 이슈, ▲생분해 플라스틱과 순환경제를 주제로 국내외 전문가들의 강연이 이어졌다.

둘째날(15일)은 ▲생분해 플라스틱 국내외 기술동향 및 ESG 사업동향을 주제로 한 다양한 강연과 종합 토론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됐다.

## 환경부

### 재활용 어려운 포장재는 분담금 더 낸다

‘재활용 어려움’ 등급 포장재,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분담금 할증 부과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페트병 등의 포장재가 재활용이 쉬운 재질과 구조로 개선될 수 있도록 재활용 용이성 등급\*과 연계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를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 재활용 쉬운 재질·구조를 사용하도록 유도하고자 2019년부터 도입된 제도로, 재활용 용이성에 따라 최우수, 우수, 보통, 어려움의 4개 기준으로 등급 부여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는 제품이나 포장재의 제조·수입업자에게 사용 후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해 일정량의 회수 및 재활용의무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재활용의무생산자는 회수·재활용의무를 직접 또는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에 위탁하여 이행할 수 있으며,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분담금(이하 재활용 분담금)은 재활용의무생산자가 회수·재활용의무를 공제조합에 위탁하는 경우 회수와 재활용에 필요한 적정지원금을 공제조합에 납부하는 금액이다.

지금까지 재활용 분담금은 재활용이 쉽고 어려움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됐지만, 2021년 출고·수입분부터 ‘재활용 어려움’ 등급을 받은 포장재는 20% 할증된 분담금이 부과된다.

이번에 적용되는 품목은 ‘재활용 어려움’ 등급을 받은 페트병과 ‘재활용 어려움’ 등급의 포장재 중 ‘평가결과 표시 적용예외\*’에 해당하는 품목이다.

\* 알루미늄이 부착된 종이팩, 과실주 및 위스키의 포장에 사용되는 유리병 등

해당 품목의 2021년 전체 출고·수입량은 약 82만 7,000톤이며 이 중 ‘재활용 어려움’ 등급을 받은 약 9만 9,000톤(12%)이 재활용 분담금 할증 대상이다. 할증 대상에 포함된 포장재 제조·수입업자 1,056곳은 총 17억 9천만원(1곳당 평균 170만원)이 부과된다.

분담금 할증으로 모인 재원은 현행 분담금과 분리하여 별도 회계계정으로 관리되며, 포장재 재질·구조 개선 촉진을 위해 ‘재활용 최우수’ 등급으로 평가된 포장재를 대상으로 혜택(인센티브) 지급에 우선 활용한다. 혜택 지급 대상이 되는 품목은 ‘재활용 최우수’를 받은 페트병이며, 전체 출고·수입량 대비 2.2%에 해당하는 1만 8,000톤으로 재활용 분담금 단가의 50%를 연말까지 지급받게 된다.

혜택 제공 후 잔여 재원은 포장재 재질·구조 개선을 위한 연구개발(R&D) 추진, 재생원료 사용 활성화 등 다양하게 활용될 예정이다.

한편, 환경부는 올해 1월 1일 출고·수입분부터 분담금 할증 적용품목을 유리병, 종이팩, 금속캔 등 모든 생산자책임재활용(EPR) 대상 포장재로 일괄적으로 확대한다.

마재정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장은 “재활용 분담금이 재활용 용이성 등급과 연계되면 재활용이 어려운 포장재가 재활용이 보다 쉬운 재질과 구조로 개선될 것”이라며, “일상에서 사용하는 포장재가 더 많이 재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interpack 2023’

### 한국 설명회 오는 10월 6일 개최

잠재 방문객 대상으로 전시회 구성 및 글로벌 트렌드 분석 전달

독일 뒤셀도르프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포장산업전시회 interpack이 10월 6일 한국에서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내년 5월 전시회 개최를 앞두고 주요 전시회 구성을 알리고, 포장 산업 트렌드와 글로벌 시장 분석을 전달하기 위해 열린다.

interpack은 3년 주기로 개최되나, 지난 2020년도는 팬데믹으로 한 차례 취소됐다. 가장 최근 개최된 2017년 데이터를 살펴보면 순수 전시장 면적이 178,124sqm에 달했으며 이를 55개국 2,860개사가 가득 채웠다. 본 전시회는 B2B 산업전시회로 일반인은 참가할 수 없다. 지난 전시회의 경우 169개국 170,899명의 전문가가 방문하는 기록적 수치를 보였다.

본 전시회는 포장이 필요한 모든 분야를 총망라한다. 주요 분야로는 식품, 음료, 베이커리, 제약, 화장품, 비식



▲ 세계 최대 포장산업전시회 interpack이 10월 6일 한국에서 설명회를 개최한다.

품 소비재, 공산품 등의 포장가공기술, 패키지 인쇄, 라벨링 등이 있다. 올해 interpack은 글로벌 메가트렌드를 적극 반영해 순환경제, 자원보존, 디지털기술, 제품안전이라는 4가지 대주제를 선정했다. 패키징 산업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온 interpack은 올해도 전문 부대행사를 통해 업계에 인사이트와 혁신을 전달한다.

전 세계 소비재 기업들은 ESG 시대에 발맞춘 지속가능한 포장 포트폴리오를 출시하고 있다. 국내 기업들도 재활용이 용이한 리무버블 라벨, 경량화 용기 출시 등 제로웨이스트 친환경 포장재에 대한 연구 및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한 플라스틱 포장재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세부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제품안전, 지속가능한 개발에 초점을 맞춘 interpack 전시회가 그 어느 때보다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번 한국 설명회 연사로 베른트 야블로노브스키(Bernd Jablonowski) 메세뒤셀도르프 부사장과 마쿠스 루스틀러(Markus Rustler) 참가사 위원회 회장이 직접 한국 잠재 방문객들을 만나 전문 정보를 전달한다. 베르트 야블로노브스키 이사는 메세 뒤셀도르프에서 약 30년간 재직하며 독일 interpack 전시회 및 글로벌 포트폴리오를 총괄한 포장 전시회 전문가이다. 마쿠스 루스틀러 회장은 독일 기계공업협회 VDMA 이사회 멤버이자 드레스덴에 본사를 둔 세계적 소형제과류 포장 기업인 Thegarten-Pactec GmbH & Co. KG사의 대표 이사이다. 설명회 이후에는 세계적 전문가인 두 연사와의 질의응답 및 오찬이 예정돼 있다. 따라서, 전시회 방문을 고려하고 있거나, 신규 비즈니스 활로 개척을 모색하는 전문가 그룹에게 매우 유용한 자리가 될 것이다. 전시회 및 포장산업 이해도를 넓힐 자리가 될 interpack 설명회는 서울 더플라자호텔 4층 메이플홀에서 10월 6일(목) 오전 11시-오후 2시에 진행된다. 관련 문의는 interpack 한국대표부 라인메쎬(sjlee@rmesse.co.kr, 02-798-4343)로 하면 된다.

연세대학교 패키징기술경영 최고위과정 총동문회

패키징산업 플라스틱 자원순환 사회적 책임 캠페인 수행

태안 연포해수욕장 해양 쓰레기 수거 봉사활동과 JK Materials 당진공장 견학



▲ 연세대학교 패키징기술경영 최고위과정 총동문회가 JK Materials(대표 민경웅)와 함께 태안해안국립공원 내 연포해수욕장에서 해양 쓰레기 수거 환경 정화 활동을 펼쳤다.



▲ JK Materials 당진공장을 방문하여 신규설비 BOPP 및 LLDPE 라인 현장을 견학한 연세대학교 패키징기술경영 최고위과정 총동문회

연세대학교 패키징및물류학과(학과장 이강대) 연세패키징기술경영 최고위과정 총동문회(회장 임이중) 주최로 JK Materials(대표 민경웅)와 함께 태안해안국립공원 내 연포해수욕장 해안을 따라 약 2km를 걸으며 해양 쓰레기를 수거 환경 정화 활동을 펼쳤다. 연세대학교 패키징및물류학과가 운영하는 연세패키징기술경영 최고위과정 총동문회 동문과 JK Materials 임직원 등 34명이 참여하여 지난 8월 26일 태안해안국립공원 연포해수욕장에서 패키징산업·학 합동으로 플라스틱 자원순환 사회적 책임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역량 강화를 위해 해양 쓰레기 수거 봉사 활동을 펼쳤다. 최근 워드 코로나로 일상 회복과 여름 휴가철로 바다를 찾는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늘어난 생활 쓰레



▲ 약 2km를 걸으며 쓰레기를 수거하고, 해양자원의 소중함을 인식하며 구슬땀을 흘렸다.

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 해안 환경 정화를 위해 해안을 따라 약 2km를 걸으며 쓰레기를 수거하고, 해양자원의 소중함을 인식하며 구슬땀을 흘렸다. 연세패키징기술경영 최고위과정 총동문회 임이중 회장은 “최근 경영계의 화두가 된 ESG는 기업과 대학의 상생발전에도 적용할 수 있는 중요한 가치로 부상하고 있으며, 플라스틱(연포장) 제조 패키징산업으로 자원순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친환경 활동을 지속함과 더불어 ‘연세패키징기술경영최고위과정’을 통해 기업과 대학 간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하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하겠다”라고 재활용과 친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리고, 봉사활동에 앞서 오전에는 JK Materials 당진공장을 방문하여 신규설비 BOPP 및 LLDPE 라인 현장 견학을 하였다. 민경웅 대표는 신규설비 도입으로 친환경 소재 필름 생산과 기술개발에 지속적인 투자로 산·학이 함께하는 친환경 협업을 통한 상생 경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사)한국파렛트컨테이너협회

## 서병륜 회장, 아시아파렛트시스템연맹 제9대 회장으로 선출

지난 2대와 3대에 이어 총 3회째 회장직 맡아 아시아 물류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 (사)한국파렛트컨테이너협회(KPCA) 서병륜 회장이 아시아파렛트시스템연맹(APSF) 제9대 회장으로 선출되었다고 밝혔다.

(사)한국파렛트컨테이너협회(이하 KPCA) 서병륜 회장은 지난 9월 7일에 회장국 일본이 개최한 ‘제17차 아시아파렛트시스템연맹(Asia Pallet System Federation, 이하 APSF) 정기총회’에서 회원국들의 만장일치로 제9대 APSF 회장으로 선출되었다고 밝혔다.

서병륜 APSF회장은 지난 2대(2008~2010)와 3대(2010~2012) 회장직을 맡은 적이 있었으며, 이번 총회에서 9대(2022~2024) 회장에 선출되어 지금까지 3회째 APSF 회장을 맡아, 아시아 물류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서병륜 회장은 이날 취임 인사에서 “APSF 회장직을 맡게 되어 영광이며, 아시아 경제발전을 위해 아시아 지역에 친환경적인 파렛트 유닛로드 공동 물류시스템구축을 통한 아시아 순환물류체계를 확대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다”고 전하며, “파렛트 재사용에 따른 온실가스 저감량에 대해 LCA(Life Cycle Assessment, 전 과정 평가) 분석을 통해 탄소배출 권리를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2006년 창립된 APSF의 사업목적

수행하기 위해 초창기에 추진하였던 아시아 ‘유닛로드스쿨(Unit Load School)’ 활동을 고도화된 ‘온라인 유닛로드스쿨’ 강좌로 다시 개설하여 파렛트시스템 전문가를 양성하고, 아시아 국가 간에 표준파렛트 풀링시스템을 더욱 확대하겠다”고 다짐하였다. 또한 “아시아 국가 간 무역활동에 APSF 일관수송용 표준파렛트를 사용하고, 파렛트의 관세면제를 도입하기 위한 국제제도”를 만들 것이며, 그 외에도 온실가스 위기에 처한 지구를 보호하기 위해 친환경 파렛트시스템 방안이 마련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하였다.

APSF는 2006년 6월 8일 일본 동경에서 KPCA가 주도한 아시아 파렛트 표준화 추진을 위한 국제기구로 아시아 6개국 대표가 참가하여 협의 및 논의 끝에 창립되었다. 이를 통해, APSF는 한·중·일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들 간 일관 수송용 파렛트를 통한 물류 및 유통표준과 통합 유닛로드시스템(Unit Load System)을 지원하는 핵심 국제기구로 현재 KPCA가 사무국을 맡고 있다. 화상회의로 진행된 이번 제17차 APSF 정기총회는 8개국(한국, 중국, 일본,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미얀마) 회원국에서 50명의 관계자가 참석하였다. 서병륜 회장은 기조연설에서 ‘아시아 파렛트 친환경시스템 전략’이라는 주제로 ▲기후변화 위기와 탄소중립 정책, ▲UN의 2050년 탄소중립 정책에 대응, ▲아시아권 순환물류체계(RTS) 추진, ▲아시아 파렛트시스템의 탄소배출권 확보방안, ▲향후 글로벌 확대 방향 등을 발표했다.